

강스템바이오텍, 큐라미스와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계약

〈위탁개발생산〉

20억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큐라미스에 제대혈 줄기세포 제공 mRNA 도입, 치료제 개발 가속화



강스템바이오텍의 나종천 대표이사, 강경선 기술고문과 큐라미스 성정준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가 강스템바이오텍 본사에서 진행된 CDMO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회사인 큐라미스와 2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CDM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 수주다.

큐라미스는 서울대의대 신경과 성정준 교수가 2018년 창업한 바이오회사로,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이용한 세포융합기술을 바탕으로 근육신경계통의 난치성 질환인 듀센 근이영양증 극복을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제(FM-022)를 개발하고 있다. 근육신경계통의 난치성 질환은 수년 내 사망에 이르는 중증질환으로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강스템바이오텍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원료의약품 출발물질로서 자사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큐라미스에 제공하고, FM-022 비임상 및 임상 시료용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위탁 생산하여 공급한다.

또 큐라미스는 제대혈유래줄기세포 공급망 확보 및 사업 파트너 제휴를 통해 mRNA 도입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mRNA 기술은 최근 최근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활용

할 수 있을 만큼 업계의 도전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으며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시료 생산용 세포 공급 등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CDMO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프리모리스와 10억원 규모의 첫번째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고, 기능 강화 엑소솜 제조를 위탁 받은 바 있다. 회사측은 CMO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나종천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지난 3월 프리모리스와의 계약에 이어 CDMO사업의 본격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최근 CMO제조 위탁에 관한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대표는 “이번 CDMO 계약으로 줄

기세포가 mRNA를 활용하는 백신 및 치료제 등의 기술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세포융합 기술을 통한 혁신적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는 큐라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앞으로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019년 준공된 글로벌수준의 줄기세포 GMP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3상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 단계의 의약품 생산 경험을 갖고 있다. 고품질·고효율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 개발에서 상업화 임상까지 맞춤형 공정 개발 솔루션을 제공해 단순 위탁생산뿐 아니라 의약품 생산 기획, 개발 및 상용화를 비롯한 전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CDMO 사업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물산 패션, SFDF 수상 디자이너 모집

수상자 1.2억 후원, 컬렉션 전시 기회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는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는 오는 2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17회 SFDF 수상 디자이너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SFDF 수상 디자이너는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후원받을 뿐 아니라, 국내 대표 패션기업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브랜드 매장에서 컬렉션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SFDF는 지난 2005년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설립한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으로, 15여년간 세계 시장에서 주목 받는 한국 디자이너 25개팀을 배출, 총 350만 달러(약 41억원)를 후원해 왔다. SFDF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고 있거나 해외 판매 실적이 있는 한국계 신진 패션 디자이너로, 론칭 5년 이하의 독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 학력에 따른 제한은 없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애경산업 여성 바이오 브랜드 ‘치유비’ 론칭

애경산업이 여성 바이오 브랜드 ‘치유비(ChiuuB)’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치유비는 28일 주기로 순환하는 여성 신체와 여성들의 정서에 대한 케어를 도와주는 바이오 브랜드이다.

치유비의 브랜드명은 ▲밸런스(Balance) ▲호흡(Breathing) ▲몸(Body) ▲나라는 존재(Being) ▲건강한 삶(Bio) 등 5가지 ‘비(B)’를 케어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치유비는 먼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외음부를 데일리 케어할 수 있는 순한

약산성 ‘여성청결제’를 출시했다.

라벤더, 캐모마일 등 자연유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은은한 아로마 향기 케어는 물론, 세정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함유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추출물을 함유한 pH약산성 처방을 통해 예민한 피부도 매일 사용할 수 있다.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또한 합성향료, 합성색소, 22가지 걱정 성분 등을 제외했다.

/원은미 기자

지그재그 ‘루키 브랜드 지원 프로젝트’ 시작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신진 브랜드에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루키 브랜드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그재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루키 브랜드를 소개하는 ‘금요일브’ 기획전을 이번달부터 운영한다. 최근 2년 이내 론칭된 브랜드 중 품질과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등이 우수한 4-

5곳을 선정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마다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금요일브를 통해 소개되는 브랜드가 지그재그에서 많은 타깃 고객을 확보하고, 꾸준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선정된 루키 브랜드에게는 입점 후 1년 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은미 기자

종근당, 중동에 빈혈치료제 ‘네스벨’ 공급

오만 제약사 매나진과 수출계약 사우디 등 6개국서 독점판매 계획

종근당은 오만의 제약사인 매나진과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매나진에 네스벨의 완제품을 공급하고 계약금과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 매나진은 오만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지역 6개국에서 네스벨에 대한 품목허가 후 독점 판매할 계획이다. 양사간 합의에 의해 계약 규모 등은 비공개한다.

네스벨은 다베포에틴 알파를 주성분으로 하는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로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약물의 투여 빈도를 대폭 줄여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2세대 지속형 제품으로 2019년 한국과 일본에서 출시됐다. 지난 해에는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의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로터스와 수출 계약을 맺고 대만,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에서 허가를 진행중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네스벨은 일본과 동남아에 이어 중동까지 수출되며 제품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하고 있다”며 “향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네

스프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나진은 오만에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바이오시밀러와 항암제 등 다양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K케미칼 ‘코스카정25mg’ 발매

SK케미칼은 지난 2008년 선보인 고혈압치료제 ‘코스카정’의 저용량 제품인 ‘코스카정25mg’을 발매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카정은 고혈압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ARB1 계열 약물로 오랜 기간 많은 사용 경험을 통하여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다.

기존 코스카정은 50mg와 100mg 밖에 없어 고령의 고혈압 환자와 고혈압을 동반한 신장에 환자가 복용하려면 50mg 제형을 반으로 나눠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SK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저용량 제품인 코스카정25mg을 개발하여 1일 1회 25mg 용법이 권장되는 고령자, 신장에 환자 및 과도한 혈압강하 우려가 있는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치료 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세경 기자

파스퇴르, 발효유 ‘쾌변 ABC 요구르트’

사과·비트·당근 황금비율 적용

롯데푸드 파스퇴르가 발효유 ‘쾌변 ABC 요구르트(사진)’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쾌변 ABC 요구르트는 장 건강 대표 발효유 쾌변에 ‘ABC주스’로 알려진 건강주스 레시피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 조합을 접목한 음료다. 사과, 비트, 당근의 황금 비율인 1:0.3:1 비율을 적용했다.

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쾌변 ABC 요구르트에는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을 비롯한 식이섬유 7500mg ▲테마크의 유명 유산균인 BB-12가 포함된 4종의 복합 유산균 ▲3종의 올리고당 1400mg ▲락투로스 1300mg 등이 들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신바이오틱스 쾌변 시스템을 이룬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은 기능성 성분으로 200편 이상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갖추고, EFSA(유럽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6가지 헬스 클레임(기능성 표기)을 획득해 그 효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락토프리 특허공법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장이 편안하게 요구르트를 즐길 수 있다.

동양인에게 흔한 유당불내증은 유당 분해효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가스, 설사, 복통 등의 불편을 겪는 증상이다. 보통 발효유에도 일부 유당이 남아 있는데 쾌변은 이를 분해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걱정없이 마실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